

# 벤투호, 공격 라인 줄 부상에 중동 원정 근심

손흥민(토트넘)의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벤투 감독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6일 열린 2021-22 시즌 리그컵 준결승 1차전 첼시 원정 경기에서 다리 근육에 통증을 느끼고 교체된 바 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7일 "손흥민이 다음 A매치 기간(1월 24~2월 2일) 전까지 훈련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벤투호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짓기 위한 아시아 최종예선 7, 8차전 중동 원정 여정을 손흥민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유럽파인 황희찬(울버햄튼), 황의조(보르도)도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공격 라인 전반을 재정비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벤투호는 15일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 이어 21일에는 몰도바와 평가전을 갖는다. 최종 예선에 앞서 치루는 두 차례의 평가전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해 손흥민 등 유럽파 없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하기 위한 정비



▲ 훈련 중인 남자 축구국가대표팀. 사진=대한축구협회

를 해야 하는 것이 벤투호의 급선무로 떠올랐다. 유럽파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 발굴이 전훈의 핵심이 된 셈이다.

두 차례의 평가전을 치른 벤투호는 27일 레바논과 원정경기, 다음 달 1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리아와 경기에 연이어 나선다. 유럽파 선수들은 레바논 원정부터 합류한다. 원정 2연전을 다 이기면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0연속 월드컵 본선행의 대기록을 쓴다.

# 박인비, 예년 비해 빠르게 시즌 출격

골프여제 박인비(34)가 2022 시즌을 예년보다 빨리 시작한다.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인비는 이달 20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GC (파71·6645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올해 첫 티샷을 날린다.



▲ 지난 기아클래식에서 박인비. 사진=lpga.com

위해 세계랭킹을 끌어올려야 했던 2020년밖에 없었다. 박인비는 그해 1, 2월 4개 대회에 출전하며 페이스를 올리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정을 멈췄다.

박인비의 일정 변화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것이다. 박인비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마치고 일찌감치 2021시즌을 접었다. 휴식과 체력 보강에 열중하던 박인비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계획보다 빨리 지난달 말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해 훈련에 들어갔다.

2007년 LPGA 데뷔 이후 통산 21승(메이저 7승), 올해의 선수(2013년), 올림픽 금메달(2016), 세계 1위, 명예의 전당 입성 등을 이룬 박인비는 여전히 매 대회마다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세리(25승·메이저 5승)의 한국인 최다승 타이까지 4승을 남겨놓았다.

최근 2년간 LPGA 투어 우승자들만 자격을 갖는 이 대회에 이어 케인브리지 LPGA(1월27~30일)와 LPGA 드라이브온 챔피언십(2월3~5일)까지 3주 연속 출격한다.

매년 2, 3월쯤 첫 대회에 나서던 박인비에게는 매우 이른 시즌 출발이다. 박인비가 최근 다섯 시즌 중 1월 첫 대회부터 출전한 것은 도쿄 올림픽 대표로 뽑히기

# 테니스 경기에서 나온 이색 기록 5가지

테니스가 기록의 스포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종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다. 테니스계에서 가장 이색적인 기록 5개를 'Tennis Korea'가 소개했다.

### ■ 과성

한때 여자 테니스계를 휩쓸었던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 은퇴)가 2009년 뮌헨에서 테니스 경기 역사상 가장 큰 목소리를 기록했다. 101데시벨로 이는 앰블런스의 사이렌이나 소형 항공기가 착륙할 때의 음량보다 더 큰 소리다.

### ■ 초고속 서브 스피드

테니스 경기에서 가장 빠른 서브를 기록한 선수는 샘 그로스(호주)다. 2012년 부산오픈 챌린저대회에서 기록한 것으로 263.44km이다.

### ■ 32분 만에 끝난 그랜드슬램 결승

슈테피 그라프(독일)는 1988년 롤랑가로스 결승에서 나타샤 즈베레바(벨라루스)를 6-0, 6-0 더블 베이글 스코어로 물리쳤다. 경기 시간은 32분이며 이는 지금까지 그랜드슬램 최단 경기 시간으로 남아 있다. 즈베레바가 얻은 포인트는 불과 13점에 불과했다.

### ■ 리턴 포인트

2017년 롤랑가로스 3회전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니콜라스 피셔(조지아)와의 경기에서 나달은 리턴으로만 41포인트를 취했다. 이는 상대방이 따낸 36포인트보다 많다. 경기는 나달이 6-0, 6-1, 6-0으로 압승했다.

### ■ 연속 105포인트

로저 페더러(스위스)는 테니스계에 각종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진기한 기록은 2007년 US오픈에서 실책(unforced error)없이 105포인트를 연속으로 따낸 것이다. 페더러의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페더러는 이 대회에서 조코비치를 물리치고 우승했다.



사장님,  
힘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